

새로운 중국과 과학기술 드라이브

노승준/㈜CJK스트래티지 대표

지난 연말 중국 최고의 권좌에 오른 후진타오 총서기는 전 인민이 편안하게 사는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전면적 건설”을 중국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에 의한 국가의 진흥”을 제창한다. 농촌에 9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정권은 대개 농업정책을 최우선시 해왔으나 제16차 당대회에서 과학우선의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하이테크입국의 선언에서 중국지도부는 IT, 바이오, 나노테크 등의 기술분야를 적시하며 “열쇠가 되는 과학 분야의 최전선에서 중핵기술을 장악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과학기술 드라이브는 2000년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0차5개년 계획” 즉 10.5계획에 담겨 있다. 10.5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후진적인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고민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5계획은 또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냉전의 산물인 863계획의 성공에 기초하는 역설을 안고 있다. 863(86년 3월) 계획이란 냉전구조가 지속되던 1983년 미국이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놓은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18개의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그 후 15년 동안 약 3만명의 연구자가 육성되는데 이들이 흔히 중국 IT의 1세대가 된다.

2001년 3월 주룽지 총리는 10.5계획의 구체상을 발표하며 863계획의 성공적인 바탕 위에 항공우주, 정보, 신소재,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확립하겠다는 야심을 피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과기부는 기초연구, 농업 및 공업 등 산업별 응용연구, 과학기술연구인력의 양성 등 상당히 균형 있는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IT분야이다. 10.5계획의 중요 구성요소인 정보화발전 계획은 통신, IT제조업, 소프트웨어라는 3대 중점육성산업을 적시하며 광의의 e-China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보화발전계획은 내용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에서도 이례적이며 큰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중국수뇌부가 IT를 국부창출의 중심적 힘으로 인식하고 이 작업을 초정부적 기구인 領導小組에 맡겼다는 것이다.

주룽지가 조장을 맡은 이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부조장이던 후진타오가 총서기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의 IT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실제로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차 당대회서 정보화발전 계획의 마이크로정책이라 할 수 있는 “IT산업 우선 발전정책”이 발표된다. 이 정책은 기술수준의 제고, 경제적 이익의 제고, 효율적 자원이용의 극대화, 친환경정책의 실시, 인력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광범위한 내용의 5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장쩌민에 이어 후진타오체제에서도 중국의 정보화가 공업발전 뿐만이 아니라 사회현대화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과학기술 드라이브는 물론 IT에 그치지 않는다. 제16차 공산당대회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학원은 유전자, 뇌기능 등의 생명과학에 집중투자방침을 천명하였다. 1998년부터 “지식혁신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과학원은 연구개발조직의 개혁 및 연구중점화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당의 선언으로 지식혁신계획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정권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인 톨로 채택한 중국수뇌부의 인식은 과감하고 혁신적이다. 이 과학기술정책은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부연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先富論”에서 전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共同富裕論”으로의 개발패러다임의 전환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